

19.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신앙고백

찬 송 :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 309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마가복음 7장 24~30절

말씀묵상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딸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까지 여인에게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픈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25).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조용히 혼자 있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시선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2. 숨기고 싶은 아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25~26).

예수님 앞에 엎드린 여인은 숨겨 두었던 아픈 상처를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음을 밝히기란 어머니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해 비밀을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이 나올 수만 있다면 자신의 수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딸을 고쳐 주셨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3.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27~28).

큰 결단으로 엎드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먼저 줄 수 없다' 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여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진 여인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 간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낮은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한다면 두려움 없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맺는말.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 준 사랑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무게도 짐작해봅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내가 받는 부모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서 대면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적용

나를 위해 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해 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은 국내미자립교회(군산서수제일교회)를 후원합니다.
 - 2. 어버이주일**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65세 이상의 성도들을 위해 카네이션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 3. 성경통독강해**
성경통독강해를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4. 수요일예배와 금요기도회**
성경통독이 6월 말에 끝납니다. 수요일예배와 금요기도회는 7월 첫째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5. 목장별 전화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목장별로 전화심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 6. 스마트요람 전자출석**
스마트요람에 있는 바코드 또는 나눠드린 바코드로 본당 3층에서 발열 및 출석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PLAY스토어 - <스마트요람>앱 다운- 둔전교회를 검색해서 가입)
 - 7. 예배위원안내**
주보 2면 하단에 예배위원을 안내해 드리니 담당자께서는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8.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 교우소식
소천 - 故 주인현 성도(명민주 집사 시부, 1목장) : 7일(금)
헌물 - 한춘자 권사께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 최진수·최영란집사께서 어버이주일 선물을 헌물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지 휘 자 : 이영준
교육전도사 : 신새벽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정임 김성혜 이하림

The ni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고후 6:1-2)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둔전교회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031)751-7230

www.doonjeon.kr

인도 : 임창세 목사

※ 표는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 찬송 40장 다같이

2·3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 임재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같이

※ 교독문 98.어버이주일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579장 다같이

1부: 박영애 권사
 2부: 김영주 권사
 3부: 김성한 청년

성경봉독 요한복음 4장 43-54절(신약149) 인도자

찬양 요계벳의 노래 영상

말씀 주만바라볼지라(33)
 걸림들을 제거하라 임창세 목사

5월 봉사위원

	5월 9일	5월 16일	5월 23일	5월 30일
예배기도	1부 박영애	남영옥	유인숙	박영원
	2부 김영주	최광순	최진수	전옥자
	3부 김성찬	방태성	김은수	이하림
헌금위원	1부: 박영애 2부: 박영분 장영미			
안내위원				

결단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송영 주께서 주신 동산에 다같이
 ※ 축도 임창세 목사
 □ 3부 설교 지혜란 무엇인가② 천광우 목사
 하나님의 때(전 3:11~14)

수요일예배 저녁 7시 30분 금요일야기도회 저녁 9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예배를 잠정 중단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54절】

⁴³이들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⁴⁴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⁴⁵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 이더라 ... ⁵⁰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⁵¹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⁵²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⁵³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⁵⁴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배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30	중예배실
교육부서	유치부	오전 11:00	새성전2층
	어린이부	오전 11:00	교육관1층
	청소년부	오전 10:00	교육관2층
새벽예배		오전 5:30	새성전2층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당
금요일야기도회		오후 9:00	본당

<2021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광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김영생(인도네시아) 홍콩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구) 말씀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연대
 남신도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

◆ 성경일독 41주차 안내 (67명)

강복순 광삼화 김금란 김남일 김명숙 김영옥 김예진 김예찬 김용수
 김정에 김향순 김현섭 김효영 나차금 남영옥 남효정 박기자 박심원
 박영애 박옥련 박정순 박정아 박춘남 서소영 석장환 신연호 신영숙
 안상분 안순조 양응모 우순희 우희연 유인숙 유향순 윤종찬 이경미
 이만순 이미숙 이복덕 이복음 이상설 이용준 이인임 이해정 이희
 임근실 임신자 임완민 임한옥 장영미 전명숙 정광옥 정영숙 정장환
 정재하 정정희 주리애 주종찬 최광순 최미연 최영란 최운교 최진수
 하연주 한규봉 홍지현 황영옥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삼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십일조

임창세·주리에 권영희 김옥림 김종순 나차금 박상민·김영옥 박정순 서인순
 신연호·안상분 안홍옥 오윤희 우순희 이희·임연자 이군자 이용배 이종임
 장신자 전옥자 정영숙 정재현 정종연 정진영 조점동·황영옥 주경숙 천광우
 최영란 최인선 하연주 무명1

◆ 감사헌금

임창세·주리에 김용수·이미숙 김재정 김주용 김주는 남영옥 명민주 박상민·
 김영옥 박연우 박재락 유인숙 정귀자 정영숙 정재하 주영순 최미연 무명3

◆ 선교헌금

무명2

◆ 건축헌금

박상민·김영옥 박정아 이용배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기관헌금	목장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492,000	5,700,000	550,000			250,000	40,000

* 온라인헌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2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